

제주연구원
중국여유연구원, 산둥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
기관협력 및 현지시찰
공무출장 결과 보고서

2024. 4.

목 차

I. 출장개요	1
1. 출장 목적	1
2. 출장 지역	1
3. 출장단	1
4. 출장 일정	2
5. 방문지역 개황	2
II. 출장내용	5
1. 칭다오무역관-KOTRA	5
2. 산둥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(山东省海洋经济文化研究院)	7
3.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	9
4. 중국여유연구원(中国旅游研究院)	12
5. 현지시찰(칭다오, 베이징)	15
III. 시사점	18
1. 전략적 협력 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	18
2. 기반산업·신산업 협력 가치 제고 및 기회 확대	19

I

출장개요

1 출장 목적

- 금번 중국 출장 주요 목적은 해양경제 등 신산업 중심의 협력기반 구축과 관광산업 중심의 협력 고도화가 주요 목적임
 - 해양경제 관련 협력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주요하게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위치한 산둥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 방문 및 좌담회 등을 추진하여, 제주와 중국 산둥성 및 칭다오시 간에 해양경제 및 문화의 교류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함
 - 관광산업 협력 고도화를 목적으로, 중국 베이징시에 위치한 중국여유연구원 방문 및 좌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관광정책 및 발전추세를 파악하고, 제주와 중국 관광협력의 새로운 기반을 협의하고자 함
 - 이외에도 산둥성 칭다오시와 위치한 칭다오무역관-KOTRA, 베이징시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등을 방문하여, 코로나19 이후 현지 상황과 대한국 기업 정책, 분위기와 정성 등 자문을 통해 제주의 대중국 정책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함
 - 칭다오무역관-KOTRA는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제품의 수출, 투자유치, 마케팅, 현지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2 출장 지역

- 중국 산둥(山东)성 칭다오(靑島)시
- 중국 베이징(北京)시

3 출장단

- 제주연구원 관계자 4인
 -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
 - 허문정 도정연구원
 - 강영준 혁신경제연구부장
 - 이중화 부연구위원

4 출장 일정

일 자	방문국	주요일정
3. 18.(월)	한국 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09:25)한국 제주 출발 → (13:05)한국 인천 출발 → (13:40)중국 칭다오 도착 • (16:00)칭다오무역관-KOTRA : 방문 및 좌담회
3. 19.(화)	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09:00~15:00) 현지시찰: 영빈관, 칭다오맥주박물관 • (16:00~18:00) 산둥성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- 방문 및 좌담회
3. 20.(수)	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08:00~12:30) 이동(고속철도, 칭다오북-베이징남) • (12:30~15:00) 식사/호텔 체크인 및 이동 • (15:00~17:00)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북경사무소
3. 21.(목)	중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0:00~20:00) 중국여유연구원 방문·회의, 현지시찰(자금성) - (10:00~12:00) 중국여유연구원 방문·회의 - (12:00~18:00) 현지시찰: 자금성
3. 22.(금)	중국 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10:50-14:25) 베이징 → 제주

5 방문지역 개황

□ 중국 산둥성 칭다오(靑島)

- 위치 : 중국 산둥반도 남동쪽, 황해 북쪽 해안
- 날씨 : 온대·계절풍, 3월 18일-20일 기간 5~12℃, 구름多
※제주 기온: 3~11℃(3월 9일 기준)
- 면적 : 1,129km²
- GDP : 1조 5,760억 위안(288조 8,806원, 2022년)
- 경제성장률 : 5.9%(2023년)
- 1인당 GDP : 14.49만 위안(약 2,656만원, 2022년)
- 인구 : 1,034만(2022년말 상주인구), 외국인 20만명, 한국인 10만명
- 한국기업 : 2,322개(토프톤, 리동화공, 농심, 신도리코, 포스코, 고려제강 등)
- 관할지역 : 7개 직할시, 4개 현급시
- 주요 정책
- (국가급) 신구동력전환(2018), 황허유역 생태보호 및 고품질 발전(2019), 산둥자유무역

시험구 칭다오편구, 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협력시범구 등 국가급 발전 전략 하에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 추진

- (성급) 지역총생산 및 대외교역량 산동성 내 1위, 3차산업 비중 지속적 확대, 자오등 경제권(칭다오, 웨이하이, 옌타이, 르자오, 웨이팡)을 주도, RCEP 선행 행동계획 대외개방 추진

○ 주요산업 : ▲전통산업: 가전제품, 석유화학, 섬유, 식품, 기계장비, 고무, 자동차, 궤도교통, 선박, 전자정보, ▲신흥산업: 해양산업, 신재료, 바이오, 첨단장비제조, 신에너지, 친환경, 차세대정보기술, 신에너지 자동차

○ 한국과 관계 : ▲자매도시: 대구(1993.12), ▲우호도시: 인천(1995), 평택(1999), 부산((2003), 군산(2003), 전주(2006), 울산(2009), 대전(2013)

□ 베이징(北京)

○ 위치 : 중국 화북, 화북평원 북부

○ 날씨 : 난온대·반습·성계절풍, 방문기간(3.20-21) 3~17℃, 구름多
※제주 기온: 3~11℃(3월 9일 기준)

○ 면적 : 1만 6,410km²

○ GDP : 4조 3,760.7억 위안(806조 1,7056억원, 2022년)

○ 경제성장률 : 5.2%(2023년)

○ 1인당 GDP : 19.03만 위안(약 3,488만원, 2022년)

○ 인구 : 2,185만(2022년말 기준), 외국인 50만명, 한국인 10만명

- 한국기업 : 456개(삼성, LG, 기아, 현대, 한국타이어, 신한은행 등)

○ 관할지역 : 16개 자치구

○ 주요 정책

- (국가급) 징진지 산업 공동 발전(2014, 베이징, 텐진, 허베이)

- (성급) ▲서비스업 3차 대외개방 조치(임대 및 비즈니스, 정보전송·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, 금융, 과학연구 및 기술, 위생 및 사회사업, 문화·체육 및 오락),
▲2024 지방자치사업 주요 과제 목록: 도시기본계획, 국제교류센터 기능 강화,

지방기관이전, 베이징-충안신구 연계 발전, 공동혁신 및 산업협력 심화, 공동 서비스 구축 및 공유

- 주요산업 : ▲선도형 지주산업: 정보기술, 의약건강, ▲특색우위산업: 통합회로, 지능형 네트워크 연결 자동차, 지능형 제조 및 설비, 친환경 에너지, ▲혁신연계산업: 블록체인 및 고급 컴퓨팅, 과학기술 서비스업, 스마트시티, 정보콘텐츠 소비, ▲미래산업: 일련의 미래 포론티어 산업
- 한국과 관계 : ▲자매교류: 총 18개, 서울시(1993) 이외 구군단위 행정구역 17개(서울 15, 인천 1, 전남 1), ▲우호교류: 부산(2013) 이외 구군 단위 행정구역 7개(서울 2, 부산 2, 충남 1, 전남 2)

II 출장내용

1 칭다오무역관-KOTRA

□ 개요

- 일시 : 2024년 3월 18일(월) 16:00~18:00
- 장소 : 칭다오무역관-KOTRA
- 주소 : Rm2308, HNA Center, No.2 Hongkong Mid Road, ShiNan District, Qingdao, Shandong, China



□ 주요 연수 내용

- 현재 칭다오 산둥성 지역에 한국기업은 약 4,500개 정도 남아 있으며, 이 중 50%가 칭다오시에 위치하고 있어, 한중 기업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, 산둥성 중 칭다오시의 상징적 의미는 여전히 있는 상황임
- 그러나 최근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및 활용 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한국기업 및 한국인들의 중국 투자 및 체류 수준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함
 -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진출은 200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위주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진행되었으나, 중국 노동력 비용의 상승, 과거의 사드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국간 교류 협력 수준은 크게 감소한 상황임
 - 현재까지 중국 시장에 남아있는 주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중요한 대기업 위주이며,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양적인 차원의 기회에서 질적인 차원의 집중으로 변화하고 있음
-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산둥성에

- 서 한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증한바 있음
- 칭다오시는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, 제주나 전남 등 지역은 청정해역에 대한 홍보 및 수입수요가 매칭되는 수산물, 수산 가공품에 대한 품목을 연계하여 수출촉진을 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중국에서 부족한 제품에 대한 수출촉진이 필요하며, 일례로 해삼에 대한 물량이 부족한 상황임
 - 전남지역의 해삼공장에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,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 효과와 함께 호응이 좋은 상황임
 - 전남지역에서 수입된 재화는 주로 냉동어류로 수입이 되는 상황이며, 소비체인이 형성되어 있고, 수입 후 생산 및 가공 및 슈퍼마켓에서 바로 판매되는 상황임, 중국인들은 이윤이 남으면 한국인들보다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성향도 높음
 - 산둥성에서 수산물 수입이 실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, 이는 산둥성의 소비규모 이외에 칭다오시의 좋은 물류 환경 등이 연계되어 베이징 및 화북지역으로 수입 재화가 유통되는 것임
 - 칭다오는 관광분야 중 해외 여행에 대해 개방적이며, 많은 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, 최근 한중관계의 영향으로 한국 대비 동남아에 대한 관광 프로그램이 더욱 높은 상황임
 - 주요하게 사드 이후 대 양국간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함
 - 중국인 관광객은 양보다 질에 대한 관광수요 확대가 높아지고 있음
 - 비록 한중관계의 변화로 인해 대 중국 조사 및 협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로, 아직까지 코트라외의 중국 관련 지역무역관의 통합 등 계획 없지만, 인력감소는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임
 - 한국의 지자체와 산둥성 간 협력의 좋은 사례로는 인천시와 웨이하이시가 협력하여 웨이하이에 인천전시관을 개관을 들 수 있음
 - 인천전시관은 복합문화공간처럼 중국과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함께 하고 있어, 조화로운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됨
 - 이러한 교류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칭다오에 교보그룹이 진출해있는데, 크루즈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 시, 공연을 하는 것을 기획 중이며, 동 계획을 6월 중 제주 개최 예정인 맥주축제와 연결해서 추진한다고 들음
 - 맥주축제와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의 반응이 좋았다고 함
 - 중국에는 다양한 동호회가 존재하며, 일년에 크루즈를 통해 몇 백명, 즉 많은 규모의 사람이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방문하는 만큼, 제주행 크루즈 중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많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

2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(山东省海洋经济文化研究院)

□ 개요

- 일시 : 2024년 3월 19일(화) 16:00~18:00
- 장소 :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 회의실
- 주소 : 山东省青岛市市南区金湖路8号



□ 주요 연수 내용

- 한국과 산동성은 높은 수준의 해양산업 협력 기회가 존재하며, 더 나아가 산동성과 제주는 협력 관계를 체결한지 약 6년 정도가 되어 향후 신기회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의 기회가 높음
 - 제주연구원과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2018년 MOU를 체결하고 2018년은 산동성에서 2019년은 제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높은 성과를 평가받았음
-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산동사회과학원에서 산동성의 해양경제 발전전략 및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, 본 연구원을 통해 산동성의 해양 경제 및 문화 발전에 높은 연구성과를 거두었음
- 제주연구원 역시 한국에서 관광과 해양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이 진행되는 기관으로 해양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서 제주연구원과 본 연구원과 협력 성과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
-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매년 국제세미나를 통해 국제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있으며, 금년 7월 중 인류문명공동체와 현대문명 주제와 관련하여 국제세미나 참석이 가능한 분이 있다면 참석을 요청함

- 이와 관련해서는 해양산업, 해양문화, 디지털경제, 녹색성장 분야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임
- 참고로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중경제포럼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음
-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은 제주연구원과 이하 사항에 대한 협력을 기대함
 - 첫째,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연구
 - 산동성과 제주의 해양관광, 도서관광 등 유사성이 높으며, 협력과제를 발굴하여, 양 지역의 해양관광을 발전 촉진을 기대함
 - 둘째, 기존 협력플랫폼의 충분 활용
 - 기존 제주연구원과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의 MOU 협력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여, 해양경제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제주는 한국의 거점, 칭다오는 중국의 거점으로 상호 협력의 기회를 더욱 제고하였으면 함
 - 셋째, 양기관 전문가의 교류 심화
 - 주정기적인 두 연구기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여, 실효성 있는 협력 및 성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었으면 함
- 칭다오의 크루즈 관광은 실제 중국 내 다른 지역 대비 다소 늦게 시작됨
 - 산동성 칭다오에 크루즈 기항이 있긴 한데, 국제적인 기준의 기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
 - 즉, 크루즈 기항 관련 세부 국제 기준을 만족 못하는 부분 역시 있으며, 일례로 아직 중국국적의 크루즈 선사가 없으며, 외국 선사를 유치하고 있음
- 칭다오의 해양관광은 연안관광(유람선, 섬 체험 등)이 중심이며, 해양스포츠는 낚시 등이 주류이며, 스쿠버 다이빙 등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지만 아직 초기적인 단계라 할 수 있음
- 산동성 칭다오에는 황해수산연구소가 있으며, 중국 해역에서 양식으로 적합한 어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염지하수 활용 방안 등 역시 고려되고 있음
- 해양경제 이외에도 문화 즉, 역사적인 측면에서 산동성과 제주의 관계를 고찰하고, 이를 근거로 현대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임
- 제주지역 해양치유센터를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, 벤치마크 역시 고민하고 있는데,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센터 4곳 선정에 있어 제주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등을 논의함
 - 해양수산부 선정 4곳은 「전남 완도, 충남 태안, 경북 울진, 경남 고성」 등 4곳과 함께 해양치유센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

- 제주지역 해양치유센터는 특별법 권한 이양을 통해 500억 이상 규모의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, 올해 1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임
- 향후 협력의 초석으로 금년 7~8월 중 제주지역의 해양경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청다오 협력세미나 등을 개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
-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연구원의 이중화 부연구위원,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의 박문진 부연구위원과 지속 소통을 통해 추진하길 바람

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

□ 개요

- 일시 : 2024년 3월 20일(수) 15:00~17:00
- 장소 :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 회의실
- 주소 : 山东省青岛市市南区金湖路8号



□ 주요 연수 내용

- 베이징은 외곽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며, 내부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임
 - 최근 소수민족 등 문제로 인해 베이징 내 관광지의 입장 시 선 예약, 신분증 검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치안 관리가 높은 수준임
 - 이는 코로나 발생으로 중국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높은 수준으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한 반정부 시위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, 도보 이동시에도 신분증 검사 등을 종종 볼 수 있음
 - 또한 베이징 시 내 주요 대학교 방문 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으며,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임

- 중국 내 한국인들의 규모는 크게 감소함
 - 코로나 이전 대체적으로 중국 내 한국인 규모는 200만명 수준으로 높았으나, 2022년 말 약 20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, 베이징의 경우 유학생 포함 약 10만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1만 몇천명 수준임
 - 상하이만 명이 안되며, 한국기업의 절반은 산둥성 나머지 절반은 칭다오에 모두 모여 있는 상황임
 - 중국 내 한국인 및 기업의 감소 원인을 세부적으로 고려하면, 당초 중국 진출 한국기업은 소상공인과 가족들로 많이 구성되었으나,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소상공인 규모의 기업이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,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회귀하게 되었음
 - 이러한 분위기가 유학시장에도 그대로 연결되어 유학생은 대체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으며, 결국 본과생, 석박사생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
 - 물론 코로나의 영향 역시 높으며, 중국 정부의 장학금 관련 한국학생에 배분하는 쿼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, 외교 목적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
- 한중 관계의 악화는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 이후 너무 미국의 의견만 지지한다고 판단하여,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임
 - 한국에서 진행하는 장관급 참석인 민주포럼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반중 연맹 행사 아니냐? 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
- 중국인 전문가 및 관계자와의 교류가 과거 대비 쉽지 않고, 2023년 반간첩법이 발표되었는데, 이로 인해 외국인들과의 교류 중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 등을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됨
 - 2023년부터 북경소재 코트라, 한국무역협회, 농촌경제연구원, 산업연구원, 대외정책연구원 등 해외사무소에게 민감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음
-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며, 과거는 19-20세 실업률을 따로 발표했으나, 현재는 발표하지 않으며, 2024년 1,720만명 대졸자, 귀국유학생, 퇴역 군인들까지 고려하면 약 2,000만명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임
 - 대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으며, 고급일자리가 생기고 대학생들이 일자리 공백을 매꿔줘야 하는데, 아직은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며, 최근은 대학생들이 배달업에 종사를 많이 하는 이슈 역시 확인할 수 있음
-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한 고위직 관리자는 교육기간을 초등 5년, 중등 2년, 고등 2년으로 감소하여 15세에 사회로 나오고 돈을 모아 20세에 결혼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함

- 이러한 의견은 다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되지만, 한국 역시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해 볼 수 있는 부분임
- 중국의 격차 문제는 지역간 격차, 계층간 격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, 지역간 격차는 다소 해소되는 것으로 보이나, 계층간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됨
 -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의 격차가 지속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에서 내건 정책 슬로건이 바로 공동부유 정책 슬로건이라 할 수 있음
 - 약 2022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2050년까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매년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은 나오고 있으나, 아직 정책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
-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하는데, 지역별로 발표되는 경제성장률을 합산하면,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며, 이러한 이유는 성간(지역간) 부가가치 교역에 대한 부분이 중앙통계에서는 빠지기 때문임
 - 광둥성이 1위, 광서자치구가 2위, 산둥성이 3위 수준으로 기억함
 - 하이난성의 경우 코로나 특수가 있었으며, 코로나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이 제한되니, 하이난을 많이 갔으며, 하이난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수준보다 많이 높게 나타나기도 함
 - 그러나 하이난의 경제규모가 크지는 않아 중국 전체의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함
 - 하이난은 중국의 남쪽에서 아세안의 창구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, 최종적으로 글로벌 창구 역할을 목표로하고 있음
- 탄소중립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관심 역시 높은 상황임
 - 2030년 탄소퇴출, 2060년 탄소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며, 탄소 관련 정책으로 에너지 절감, 탄소배출절감 등이 강하게 추진되어 국내에서는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
 - 경제발전의 주력 에너지원이 석탄인데, 엄격하게 관리하니 석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어 전력제공에 큰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음
 - 따라서 석탄을 다시 활용하게 한다는 정책 역시 발표되고, 요소수 역시 언급되기 시작한 바 있음
 - 이러한 정책 추진 하에 중국의 수도권 지역의 공기는 많이 개선됨
- 한중 교류에 있어 양국 중앙정부간에는 다소 무게가 있는 교류협력이기에 추진 자체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비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됨
 - 이러한 점에서 지방단위에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고

고도화할 기회가 존재함

- 산동성의 경우 환경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과 협력을 희망하는 성향이 있음
- 한중 관계의 차원을 벗어나, 제주가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 기준, 실제 국가단위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중국에 있어 다소 부정적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할지라도,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 및 제주도가 좋을 수도 있음
 -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, 제주는 중국과의 교류 및 관광,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4 중국여유연구원(中国旅游研究院)

□ 개요

- 일시 : 2024년 3월 24일(목) 10:00~12:00
- 장소 : 중국여유연구원 회의실
- 주소 : 北京市建国门内大街甲九号2号楼10-11层



□ 주요 연수 내용

- 중국여유연구원은 2008년 설립되었으며, 한국과의 교류는 제주도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, 이외에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을 하고 있음
 - 코로나 시기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협력을 추진해왔었는데, 역시 대면 회의가 좀

더 많은 부분을 논의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함

- 최근 2024년 1분기 중국 관광업은 호황으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의 수준에 도달하였음
 - 1분기 중 설날 기간 중국 내 유동인구의 규모는 4억 7천명 수준으로 중국 관광업의 회복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음
 - 이를 통해 관광수입은 6,300억 위안, 2019년 동기 대비 7.7%가 증가하였으며, 해외여행 중국인 규모는 300만명에 달함.
 - 이러한 성과는 중국 관광업의 지속 발전에 동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언급한바 있음
 - 중국 국가급 정치협상위원인 중국여유연구원 타이빈 원장은 향후 중국 관광은 높은 발전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- 이러한 중국 관광업의 회복과 발전은 세계 여러 나라와 주요 도시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음
 - 중국은 프랑스, 독일, 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서 일방향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음
 - 싱가포르를 포함한 23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무비자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
 - 이외에도 외교나 공무에 대해서는 60개국 이상에 대해 무비자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, 환승에 대한 무비자 혜택 역시 지원하고 있음
 - 물론 비자 신청의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
- 중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는 비자 신청 절차를 넘어 소비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
 - 이전시기 중국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은 1,000달러까지 밖에 안되었는데, 지금은 5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확대되었으며, 이 의미는 자동차 구매를 빼고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소비가 가능하다는 의미임
 - 또한 알리페이 외국인 사용 지원을 위한 제도 역시 개선하였음
- 중국의 해외여행지 중 제주도의 인기는 매우 높은 지역이며, 코로나19 이슈로 상호 방문의 기회가 감소하였지만, 제도적인 정비 등을 통해 상호방문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
 - 이러한 의미에서 양국의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회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자 초석이 될 것임
- 중국과 제주의 관광협력 고도화를 위해 이하 사항에 대한 고민 및 모색이 필요함
 - 첫째, 한중 양국간 관광 정책 및 제주지역의 관광정책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 및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- 여기서 고려 가능한 정보는 관광산업 관련 정책과 촉진 방향, 이민 등 다양한 정책을 들 수 있으며, 전반적인 측면에서 상호 이해 제고가 필요함
- 둘째, 관광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함
 - 일례로 중국은 젊은이들의 제주와 같은 섬관광, 노인층의 힐링관광, 양로관광에 대한 생각과 의견 등을 공유하여 문화와 관광이 융합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이 과정 중 여행사 공급서비스, 크루즈 정보, 동북아 환선 크루즈 노선(칭다오, 옌타이, 제주 등 환해 크루즈 노선)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심이 있음
- 셋째, 회의 관련 참석하는 주요 인사는 정책 관리부서, 여행사 등 관광업의 방향과 현안 등을 인지하는 실무적인 인사로 구성되면 좋을 것임
- 매년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해상실크로드 포럼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진간 지속 논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됨
 - 우선 주요하게 중국 내 1차·2차·3차 등 순서적으로 개최지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 - 이외에도 제주연구원과 중국여유연구원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이 수립되길 기대함

5 현지시찰(칭다오, 베이징)

□ 독일총독부(영빈관)

○ 일시 : 2024년 3월 19일(화) 09:00~10: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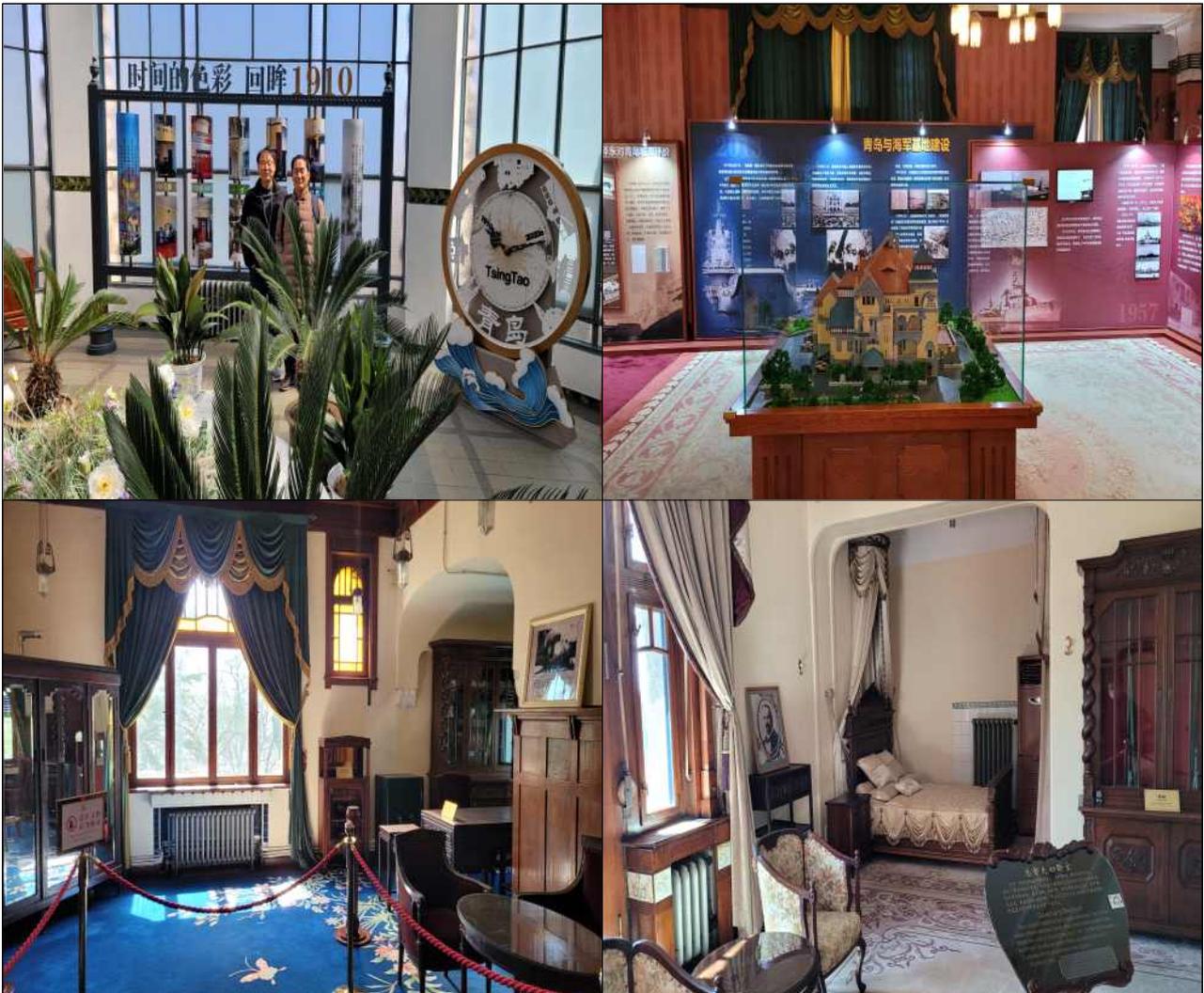
○ 지역 : 칭다오

○ 1897년 독일이 칭다오를 점유했을 때, 독일 총독의 관저로 지어진 곳임

- 기세가 웅장한 외관과 더불어 궁정식 목조 골격으로 이루어진 내부가 있음

- 약 30미터 높이의 황색 담과 부분적으로 장식된 화강암 그리고 정문 담장 위의 태양무늬 장식, 담의 모서리에 세워진 석주 등을 통해 중국에서 유럽의 이국적인 향취를 느낌

○ 독일이 칭다오 점유 후 추진 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음



□ 칭다오맥주박물관

- 일시 : 2024년 3월 19일(화) 11:00~12:30
- 지역 : 칭다오
- 중국을 대표하는 맥주 중의 하나인 칭다오맥주 관련 박물관을 방문하여, 100년 전통의 역사와 제조 과정 등을 확인함
- 칭다오맥주주식회사(0)가 2,8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건설한 맥주박물관으로 면적은 6,000㎡ 이상이며, 오래된 공장 건물과 현재 가동 중인 생산 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음
 - 칭다오맥주의 문화사, 생산과정, 맥주엔터테인먼트, 쇼핑 등 관광적 특성 제공하고 있어,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음
- 이러한 관점에서 칭다오맥주박물관은 지역 특산을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

□ 자금성 및 징산공원

- 일시 : 2024년 3월 21일(목) 13:00~18:00
- 지역 : 베이징
- 자금성은 천안문광장과 함께 위치한 중국의 명, 청 왕조의 궁궐이며,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
 - 1406년에서 1420년까지 지어졌으며, 980개에 달하는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, 72헥타르 면적임
 - 자금성 내에는 고궁박물관이 있어, 다양한 사적을 확인할 수 있음
- 최근 자금성의 입장을 위해서는 약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, 입장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임
- 자금성 뒤에 위치한 징산공원은 98.2m의 인공산으로 중국 역시 역사적으로 풍수지리를 고려했으며, 징산공원 정상에서 베이하이공원, 중남해 등 주요 명소를 볼 수 있음



1 전략적 협력 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

① 기존 MOU 협력관계 기반 연계

-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약되었던 제주연구원과 중국여유연구원, 제주연구원과 산동성해양경제연구원의 협력 사업을 더욱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
- 제주연구원은 중국여유연구원과 2015년 MOU 관계,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과 2018년 MOU 관계를 체결한바 있음
- 코로나19 발생으로 장기간 협력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, 기존 MOU 체결 조항에 근거하여, 제주와 중국, 제주와 중국 내 지역 간 상호 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강화를 목적으로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함

② 구체적인 협력계획 수립

- 최근 디지털경제, 에너지, 해양산업 등 다양한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주연구원과 중국 연구기관의 협력 성과는 정책 수립 및 협력 추진에 기여가 가능한 형태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협력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함
- 고도화 협력체계 수립은 양 자간 핵심정책과 관심사 공유 등을 통한 관련 산업 선정, 협력 범위와 목표 설정, 기관별 역할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
- 지속 가능한 협력 고도화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협력계획의 평가 및 새로운 협력기회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협력 필요 영역을 확대 혹은 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계획수립 협의 기능 역시 고려되어야 함

③ 분야별 핵심 주체 참여 체계 조성

- 연구기관 간 협력이 실용적인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, 정부, 기업, 언론 등 다양한 분야별 핵심 주체를 선정하고 참여하여 공동 목표를 더욱 다각화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기회를 더욱 제고해야 함
- 정부 간 교류는 추진 정책의 전반적인 상호 영향성을 교류하고 개선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협의하여, 협력 강화 환경 조성을 추진함
- 기업 간 교류는 기업 애로사항, 협력 희망 분야, 필요 지원 제도 등에 대해 협의하고, 정부와 기업 간 교류 역시 추진하여 정책 정보 공유와 개선 필요 사항

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함

- 언론 간 교류는 정부, 기업 등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 관련 추진상황과 성과, 향후 계획 등을 전달하고 협력체가 공동체로서 승급되도록 기여함

2 기반산업·신산업 협력 가치 제고 및 기회 확대

① 관광산업, 수출산업 등 관련 다양한 세부 영역 협력

- 국가 간 협력을 상호 공동 성장의 초석으로 연계하기 위하여, 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련 세부 사항 및 관련 영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함
 - 한중 관계 변화, 코로나19 등 요인은 한중 간 교류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
 - 그러나 양국 간 경제성장에 있어 상호 보완성과 역사적, 문화적 공통성이 높음
 -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관광 정책과 관광 성향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상호 심도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함
 - 제주와 칭다오간 여객선 및 물류항 개설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에 기반한 제주의 대중국 수출 확대 통로로 산동성 칭다오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 - 일례로 산동성 칭다오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매우 높으며, 물류이점 등으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량이 매우 큰 지역이라, 제주산 수산물의 수출 판로 확대 기회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물량이 매우 낮아, 이에 대한 진단 및 협력 기회가 존재하는 상황임
-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반드시 정책 및 경제적인 교류에 국한되지 않고, 문화와 역사 등 다양한 부분까지 확대되어, 상호 이해를 높이고 문화의 유사성과 역사적인 연대성 등을 부각하여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
 - 최근 양국 국민의 정서가 상호 저평가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, 분위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협력 역시 필요한 상황임

② 신산업의 협력 기회 확대

- 탄소중립, 디지털 기술 발전, 블루이코노미 등 다양한 거대 이슈로 인해 신산업에 대한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
 -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탄소중립이 모두의 의무가 된 시점에서, 한중 양국간 신산업 관련 기술 교류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짐
 - 즉, 탄소중립이 의무인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미국, 유럽 등 서양 국가가 관련 특허를 높게 보유하고 있기에, 제주와 중국 주요 도시간 신산업 협력은 전통적인 산업의 경제구조와는 달리 협력으로 인한 상호 경쟁력 제고에 기반이 될 수

있음

- 제주의 대표적인 신산업 영역과 관련된 재생에너지, 수소, 바이오, 해양경제 등 관련 정책적 노하우를 우선하여 산동성해양경제문화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하며,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
-

- 끝 -